

‘다가’의 의미 확대

이 기 잡
(목포대학교)

Lee, Ki-Gap. (2004). Semantic expansion of the connective ending ‘-daga’ in Korean. *Language Research* 40(3), 543-572.

In this paper, we try to show the process of semantic expansion of the connective ending ‘-daga’ in Korean. We hypothesize that ‘-daga’ originally meant ‘diversion of a course of discourse’, from which three other meanings of ‘causal relation’, ‘conditional relation’ and ‘enumeration’ are derived. The processes of semantic derivation are believed to be as following:

- (a) diversion → causal relation → conditional relation
- (b) diversion → enumeration

The ending ‘-daga’ and the topic marker ‘-nun’ are often combined to represent conditional relation. This combination is, however, affected by the strength of two semantic factors, that is, condition and conjecture. As the degrees of condition and conjecture are stronger, ‘-daga’ and ‘-nun’ can be combined more easily. For this reason, one of the strongest condition, a counter-factual one, is always represented by the restructured ending ‘-daganun’.

Key words: -daga, -daganun, diversion, causal relation, conditional relation, enumeration, semantic derivation, topic marker ‘-nun’, counter-factual condition, degree of condition, degree of conjecture, restructuring

1. 이음씨끝 ‘다가’

이음씨끝 ‘다가’는 현대 국어의 입말과 글말에 널리 쓰일 뿐만 아니라, 이미 신라 향가(처용가 등)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미루어 그 역사는 상당히 오랜 것으로 추정된다. ‘다가’는 예 (1)에서 보듯이 ‘전환, 인과, 조건, 열거’ 등 네 가지 용법으로 쓰이는데, 이들 네 용법은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로부터 그 의미가 확대된 결과일 것이다.

- (1) 가.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소리를 지르더라.(전환)
 나. 급히 먹다가 체했다.(인과)
 다. 팬히 아는 체했다가는 큰일 나지.(조건)
 라. 울다가 웃다가 하면서 정신없이 읽었지.(나열)

이 글에서는 ‘전환’을 ‘다가’의 원초적 의미로 설정하고, 이로부터의 의미 확대가 두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가정한다. 한 쪽으로는 ‘나열’이 발달하고, 다른 쪽으로는 ‘인과’의 용법이 발달하는데, ‘인과’는 다시 ‘조건’으로 번져 나간다고 해석한다.

- (a) 전환 → 나열
 (b) 전환 → 인과 → 조건

이와 같은 ‘다가’의 네 가지 용법에 따라 ‘다가’ 구문의 의미적 현상도 달라지므로, ‘다가’의 문법을 기술할 때는 이 네 용법을 구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의미의 확대라는 동태적 관점에서는 네 용법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지만, 의미적 제약과 같은 정태적 기술을 위해서는 따로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혼란을 피할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이 글에서 두 가지 문제를 논의하려는 것이다. 하나는 ‘다가’의 네 의미에 따른 의미적 특징을 기술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곧 현대 한국어에서 ‘다가’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의미적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문제라 하겠다. 다른 하나는 ‘다가’의 특정 의미가 다른 의미로 확대될 수 있는 근거를 찾는 일이다. ‘전환’에서 어떻게 ‘인과’의 해석으로 번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인과’는 어떻게 ‘조건’의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지를 살펴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사한 현상을 경험하는 다른 이음씨끝의 예를 확보함으로써, ‘다가’의 의미 확대가 한국어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임을 보이고자 한다. 특히 ‘다가’가 ‘조건’을 나타낼 때에는 주제 표지 ‘는’과 결합되어 쓰이는 것이 보통인데, ‘는’이 결합될 경우의 의미적 특징을 검토함으로써 ‘다가’로부터 ‘다가는’으로 변해 가는 재구조화 과정을 추적해 보려 한다.

2. 전 환

2.1. ‘다가’의 제약

‘다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태의 전환을 나타낸다. 선행절의 사태가 진행되던 도중에 다른 사태가 발생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두 사태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선행절의 사태는 후행절 사태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중단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어서 두 사태가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다(野間秀樹, 1993/2002, p. 243). 아래 예에서 (2가)는 선행절 사태가 자연스럽게 중단되지만,

(2나)의 선행절 사태는 후행절 사태가 발생되더라도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

(2) 가. 아기가 우유를 먹다가 잠이 들었다.

나. 기차를 타기 위해 기차역으로 나가다가 나는 그 생각을 했던 것이다.

‘다가’가 사태의 전환을 나타내는 경우,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같아야 된다는 제약은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성낙수, 1976; Song, 1983 등). 아래 예 (3)이 이를 보여 준다.

(3) 가. 아기가 우유를 먹다가 잠이 들었다.

나. 아기가 우유를 먹다가 엄마가 남은 우유를 버렸다.

그러나 다음의 예는 비록 주어가 달라도 옳은 문장이다.

(4) 가. 작년까지 철수가 회장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영수가 회장을 맡았지.

나. 철수가 기숙사에서 지내다가 요즘은 영수가 기숙사에서 살아.

다. 우리 신문사 친구들이 늘 그 술집에 다니다가 근래에는 다른 회사 사람들 출입을 하는 것 같던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주어가 달라도 ‘다가’가 쓰일 수 있는 문장이란 모두 ‘대조’로 해석되는 경우라는 사실이다. 위의 예 (4)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태의 전환이 주어의 달리함으로써 ‘대조’로 해석되는 경우이다. 이처럼 ‘다가’에 의한 ‘대조’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계기적 대조를 나타내는 점에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와 같은 동시적 대조와는 구별된다. 계기적 대조와 전환을 의미적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같으면 전환으로 해석되고, 다르다면 대조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경우가 있다. 아래 예 (5)를 보기로 하자.

(5) 가. 어께가 어제는 괜찮다가 오늘은 별로네.

나. 여태까지 손으로 쓰다가 근래에 들어서야 컴퓨터를 쓰기 시작했다.

이 예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같은데도 대조로 해석된다. 물론 이 대조의 해석은 ‘어제’와 ‘오늘’, ‘여태까지’와 ‘근래에 들어서야’ 등의 시간적 대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¹⁾ 이것은 결국 주어가 다를 경우에는 대조의 해석이 무표적이며, 주

1) 시간표현은 선행절과 후행절 모두에 올 수 있지만, 아래 예처럼 후행절에만 오는 경우도 있다.

(예) 어께가 아프다가 이제는 배가 아프다.

어가 같을 경우에는 시간 표현의 대립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대조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해 준다. 그렇다면 ‘-다가’가 ‘대조’를 나타내는 경우, 주어의 동일성 여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대조’의 속성상 그 서술어는 대조의 해석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공통된 의미적 기반을 가지면 족하다. 이 점에서 기존의 학자들이 주장해 왔던 ‘동일 서술어 제약’은 별 의미가 없는 셈이다.²⁾

지금까지 우리는 ‘-다가’가 전환의 해석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요건을 알아보았다. 첫째,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같아야 한다. 둘째, 계기적 대조로 해석될 경우 주어가 다른 것이 원칙이지만, 시간의 대립이 있을 경우에는 동일 주어도 허용된다.

그런데 ‘전환’의 해석에서 주어가 같아야 한다는 제약은 그 내용을 좀 더 정밀히 할 필요가 있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 (6) 가. 철수는 옷다가 옆 사람과 시선이 마주쳤다.
나. 철수는 옆 사람과 시선이 마주쳤다.

위의 예 (6가)에서 선행절 주어는 ‘철수’이지만 후행절의 주어는 ‘시선’이다. 이처럼 주어가 다른 데도 옳은 문장이 되었다면, 주어가 동일해야 된다는 제약은 어떻게 된 것일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6가)의 후행절이 (6나)와 같이 이중 주어 구문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비록 (6가)의 후행절의 소주어가 선행절의 주어와 다를지라도, 그 대주어가 같다면 옳은 문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³⁾ 이 점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동일해야 한다는 제약은 대주어가 같으면 허용될 수 있다는 제약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겠다. 아래의 예도 같은 부류에 든다.

- (7) 가. 철수는 달리다가 발이 겹질렸다.
나. ?철수는 달리다가 옆 사람이 넘어졌다.
다. *철수는 달리다가 영수가 도와 주었다.

(7)의 (가, 나)는 ‘철수’와 ‘철수의 발’, ‘철수’와 ‘철수의 옆 사람’과 같은 의미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이중 주어 구문을 형성할 수 있지만, (7다)는 ‘철수’와 ‘영수’가 전혀 별개의 개체이므로, 이중 주어 구문이 불가능하다.

2) 성낙수(1976), Song(1983), 이재성(1994) 등은 ‘-다가’의 주어가 다를 경우, 서술어가 같아야 된다는 제약을 제기한 바 있다.

3) Song(1983), 野間秀樹(1993), 이재성(1994)에서도 이중주어 구문의 대주어가 같을 경우, 옳은 문장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8) 가. 비가 오다가 갑자기 우박이 쏟아졌다.
- 나. 북어국을 먹다가 세 사람이나 죽었다.

예 (8)도 겉보기에는 주어가 다른 문장들이지만, 각각 ‘날씨’와 ‘사람들’을 대주어로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 주어의 통사적 제약을 지키지 않아도 전환의 해석이 가능하다.⁴⁾

결국 ‘다가’는 주어 또는 대주어가 같을 경우에는 전환으로 해석되며, 주어가 다르거나 주어가 같을지라도 시간 표현의 대립이 있을 경우에는 계기적 대조로 해석되는 셈이다.⁵⁾

2.2. ‘있다가’의 제약

‘다가’가 지속되던 사태의 전환을 뜻한다면 ‘있다가’는 사태가 완료된 뒤 다시 새로운 사태가 전개되는 것을 뜻한다.

- (9) 가. 서울 갔다가 옛 친구를 만났다.
- 나. 늦게까지 잠을 잤다가 오후 들어서야 깼다.

‘있다가’가 쓰인 위의 예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같을 경우, 선행절 사태가 완료되거나 또는 완료된 뒤 지속되던 사태가 다른 사태로 전환됨을 보여 준다. 그러나 ‘있다가’는 동일 주어의 제약을 지키면서 전환의 해석을 갖더라도 언제나 정문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서술어에 따라서는 비문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점에서 ‘있-’이 없는 ‘다가’와 구별된다.

- (10) 가. 아기가 엄마 젖을 빨다가(*빨았다가) 잠이 들었다.
- 나. 고기를 잡다가(*잡았다가) 친구를 만났다.
- 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보았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 라. 책을 읽다가(*읽었다가) 텔레비전을 켰다.

예 (10)은 모두 두 절이 주어를 공유하면서 전환의 해석을 갖는 경우인데, ‘다가’는 올 수 있지만 ‘있다가’는 불가능하다. 이것은 곧 ‘있다가’가 동일 주어 문장에 쓰인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옳은 문장이 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 되지 못함을 의

4) Song(1983, p. 129)에서는 이런 날씨의 경우를 ‘단일한 현상의 상이한 두 국면(two different phases of a single phenomenon)’이라고 하여 의미론적으로 해석한 바 있다. 단일한 현상의 상이한 두 국면이란 통사적으로 단일한 대주어의 상이한 소주어에 대응하는 것이다.

5) 대조가 아닌 순수한 전환의 해석에서 왜 주어가 같아야 하는지 그 이유가 궁급하지만, 현재로서는 ‘다가’의 고유한 통사적 특성으로 돌릴 수 있을 뿐, 그 이상의 이유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한다.⁶⁾ ‘다가’와 달리 ‘었다가’는 그 외에 다른 제약이 추가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었다가’의 이러한 비문에 대해서 한동완(1996, pp. 125-126)은 “후행절 상황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선행절 상황의 결과물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의미적 제약을 제시한 바 있다. 한동완(1996)에서 제기한 예를 다시 들어 보자.⁷⁾

- (11) 가. *명수가 그 책을 읽었다가 영희를 만났다.
나. 명수가 그곳에 갔다가 (간 그곳에서) 영희를 만났다.

(11가)가 비문인 것은 선행절 상황의 결과물이 후행절 동작과 무관한 때문이며, 반면 (11나)는 괄호 안의 의미 해석에서 보듯이 유관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정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의 문장은 이러한 주장에 의문을 제기해 준다.

- (12) 가. 고기를 잡았다가 (잡은 고기를) 놓쳤다.
나. *고기를 잡았다가 (잡은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았다.

(12)는 모두 ‘잡았다가’가 쓰였고, 또한 선행절의 결과물인 ‘잡은 고기’가 후행절과 어떤 방식으로든지 관계를 맺고 있지만 (12가)는 정문이 되고, (12나)는 비문이 되었다. 그렇다면 한동완(1996)의 의미적 제약은 전혀 무의미한 것일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아래 예 (13나)의 비문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선행절의 결과물이 후행절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제약은 유효하기 때문이다.

- (13) 가. 고기를 잡았다가 놓쳤다.
나. *고기를 잡았다가 집으로 갔다.

즉 ‘잡다’처럼 타동사인 경우, 선행절과 후행절은 그 목적어를 공유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13나)와 같이 선행절이 타동사이고, 후행절이 자동사일 경우, 목적어를 공유할 수 없으므로(의미론적으로 말하면 선행절의 결과물이 후행절과 어떠한 관계를 맺지 못하므로) 비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선·후행절이 목적어를 공유하는 예 (12)의 (가)와 (나)는 결국 선행절의 결과물이 맺는 관계의 내용에 따라 문법성이 달리 결정되는 셈이다. (12가)는 선행절 서술어의 의미 내용이 후행절에서 무효화되는 반면 (12나)에서는 ‘고기를 잡은’ 행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었다가’가 전환으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선행절의 의미 내용이

6) 아래 예처럼 목적어를 달리하여 대조로 해석되는 경우는 물론 ‘었다가’가 가능하다.

(예) 철수는 밥을 먹었다가 빵을 먹었다.

7) 한동완(1996)에서는 이밖에도 아래와 같은 문장을 예로 들고 있으나, 이 예는 비문으로 보인다.

(예) 명수가 그 책을 읽었다가 (읽은 그 책을) 영희에게 돌려 주었다.

무효화되어야 한다’는 제약을 설정해야 한다(앞으로는 이 제약을 그냥 ‘무효화 제약’이라고 부르겠다). 아래 예에서 ‘놓쳤다’ 외에도 정문이 되는 모든 서술어는 이러한 제약을 충실히 지키는 것들뿐이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14) 고기를 잡았다가 놓쳤다(놓아 주었다/살려 주었다/강에다 버렸다/...)8)

결국 ‘있다가’가 표현하는 전환은 두 종류가 있는 셈이다. 하나는 후행절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 ‘다가’가 가졌던 것과 동일한 전환이 그것이다. 이를 ‘일반적 전환’이라 부르기로 하자. 또 다른 하나는 무효화 제약이 가해져서 일반적 전환보다 훨씬 의미적으로 제한된 전환이다. 예 (14)의 선행행절이 보이는 전환이 이에 해당하는데, 우리는 이를 ‘무효화 전환’이라 부르기로 하자. 한국어 타동사가 ‘있다가’의 씨끝을 취하면 원칙적으로 일반적 전환보다는 무효화 전환으로 해석된다. 아래에서 몇 가지 예만을 들기로 한다.

(15) 가. *철수는 집을 지었다가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나. 철수는 집을 지었다가 도로 허물었다.

(16) 가. *영희는 종이학을 접었다가 친구에게 주었다.
나. 영희는 종이학을 접었다가 도로 풀었다.

위의 예 (15)와 (16)은 이른바 ‘결과동사’의 경우인데, 후행절은 선행절 동사의 결과물인 ‘집’과 ‘종이학’을 각각 무효화해야 정문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비문을 만든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17) 가. 촛불을 켜다가 껐다. (비교: *촛불을 켜다가 버렸다.)
나. 고기를 삼켰다가 도로 뱉었다. (비교: *고기를 삼켰다가 소화시켰다.)
다. 포스터를 뗐다가 도로 붙였다. (비교: *포스터를 뗐다가 찢었다.)
라. 철수는 나뭇가지를 잡았다가 놓았다. (비교: *철수는 나뭇가지를 잡았다가 부러뜨렸다.)

예 (17)은 결과동사 이외의 여러 동사들인데 마찬가지로 무효화 전환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을 보여 준다.

그렇다면 타동사의 ‘있다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제약이 필요한 셈이다. 선·

8) ‘고기를 잡았다가 시장에 내다 팔았다’가 정문으로 판단되는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자기가 먹으려고 고기를 잡았다가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 시장에 내다 팔았다’와 같은 문장은 매우 자연스러운데, 이것은 ‘자기가 먹으려고’와 ‘시장에 내다 팔았다’가 ‘대조’의 해석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대조는 ‘다가’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환이 갖는 통사적, 의미적 제약에서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다.

후행절이 동일 목적어를 가져야 하고, 선행절의 타동사의 사태를 무효화시키는 서술어가 후행절에 와야 하는 제약이 그것이다. 그런데 선행절의 내용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는, 후행절 서술어가 선행절 목적어를 당연히 공유해야 하므로, '동일 목적어'의 제약이란 잉여적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결정적으로 필요한 제약은 결국 무효화 제약인 셈이다. 그러나 무효화 전환의 제약은 원칙일 뿐, 예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부 타동사는 그 동사의 속성상 무효화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가리키다, 보다, 읽다, 돌보다, ...' 등이 이러한 동사에 드는데, 이 동사들은 목적어의 상태에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변화된 상태를 무효화한다는 제약이 성립할 수 없다. 그래서 이들 동사에 '있다가'가 결합되더라도 그 후행절은 선행절 내용을 무효화시키는 의미를 담을 수가 없는 것이다. 즉 결과동사 '만들다'는 '허물다'로, 파괴동사 '없애다'는 '새로 만들다'로, 이동동사 '마시다'는 '빨다'로 바뀔 수 있지만, '가리키다, 보다, 읽다, 돌보다...' 등의 동사들은 목적어에 아무런 상태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원래 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원래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조차 발달하지 못했다. 아래 예 (18)은 선행절 사태를 무효화하지는 않지만 그와 유사한 사태를 상정해 본 것인데, 모두 비문이 되었다.

- (18) 가. *텔레비전을 보았다가 껐다.
나. *책을 읽었다가 덮었다.

한편 '방문하다'와 같은 타동사는 일반적 전환으로 쓰일 수 있는 드문 예이다.⁹⁾ 아래 예를 보기로 하자.

- (19) 가. 철수는 런던을 방문했다가 친구를 만났다.
나. 철수는 친구를 방문했다가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다.

장소나 사람을 방문하면 곧 그 장소나 그 사람이 머무는 곳에 가 있게 된다. 즉 '방문했다가'는 '방문해서 그곳에 있다'와 같은 상태지속의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상태지속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다가'와 동일한 의미적 성격을 띠므로 일반적 전환의 해석이 가능하다. 자동사에서도 같은 현상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무효화 제약은 타동사뿐만 아니라 자동사에서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아래의 예를 보기로 하자.

- (20) 가. 아기가 한 시간 동안 잤다가 깬다.
나. *아기가 한 시간 동안 잤다가 우유를 찾았다.

9) '방문하다'의 예는 이 논문의 심사자로부터 지적받은 것이다. 여기에 적어 사의를 표한다.

(20가)의 후행절이 선행절의 사태 이전의 사태로 되돌아가서 결국 선행절의 내용을 무효화한 결과를 초래했다면, (20나)는 그런 결과가 없기 때문에 비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동사의 경우에도 선행절의 무효화 제약은 적용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타동사와 마찬가지로 자동사나 형용사도 원칙적으로 ‘있다가’와 어울리면 무효화 전환의 제약이 적용된다고 가정한다. 아래의 예 (21)이 이를 보여 준다.

- (21) 가. 바닷물에 빠진 사람은 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 나. 원래의 색이 오랜 세월에 바랬다가 최근에 제 색을 찾았다.
- 다. 머리가 빠졌다가 다시 났다.
- 라. 이 건물은 전쟁 통에 부서졌다가 최근에 다시 세워진 것이다.
- 마. 없어졌다가 다시 찾은 보물
- 바. 기온이 높았다가 최근에야 낮아졌다.

(21)의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있다가’가 쓰인 문장의 의미 내용을 무효화하지 않을 경우 비문이 된다. 이런 점은 곧 일부의 자동사도 타동사와 마찬가지로 무효화 전환의 제약이 가해져야 함을 말해 준다. 이처럼 의미적 제약이 있는 자동사는 상태의 변화란 점에서 앞서 설명한 타동사의 경우와 같은데, 다만 자동사는 주어의 상태 변화를 의미하는 점에서, 목적어의 상태 변화를 의미하는 타동사와는 차이가 있다.

한편 자동사 가운데서도 주어의 이동을 나타내는 ‘가다, 오다’나 ‘앉다, 서다, 타다’ 등 동작의 결과가 있는 동사는 과거시제의 ‘-았-’과 어울릴 경우 상태지속의 의미를 가질 수 있어서, ‘갔다가’는 ‘가 있다가’, ‘앉았다가’는 ‘앉아 있다가’, ‘탰다가’는 ‘타 있다가’와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이런 동사들의 ‘있다가’는 마치 ‘있다가’처럼 동사의 줄기에 ‘다가’가 직접 연결되는 경우와 같이 행동하므로, 무효화 제약을 지키지 않아서 일반적 전환의 해석을 가질 수 있다. (19)처럼 ‘방문하다’가 다른 타동사와 달리 일반적 전환을 허용했던 것도 같은 이유라 하겠다. 예 (22)는 상태 지속의 자동사들이 일반적 전환을 보이는 경우이다.

- (22) 가. 철수는 학교에 갔다가 친구를 만났다.
- 나. 철수는 집에 왔다가 자 버렸다.
- 다. 철수는 앉았다가 다리를 찼다.
- 라. 철수는 차에 탔다가 옛 친구를 만났다.

반면 ‘걷다, 뛰다, 놀다, ...’ 등의 자동사들은 선행절 사태를 무효화하는 일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다른 전환의 해석도 불가능하여 ‘있다가’가 쓰이면 원칙적으로 비문이 생기는데, 예 (23)이 이를 보여 준다.

- (23) 가. *철수는 천천히 걸었다가 도로 넘어졌다.
 나. *철수는 빨리 뛰었다가 걸었다.
 다. *철수는 친구들과 놀았다가 집에 왔다.

결국 ‘었다가’와 함께 쓰이는 각 동사들은 일반적 전환, 무효화 전환, 그리고 어떠한 전환도 허용하지 않는 세 가지 부류로 나뉘는 셈이다. 여기서는 무효화 전환을 무표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일반적 전환과 전환의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 두 경우를 유효적인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무표적인 무표화 제약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따지지 않았고, 나머지 두 경우는 각각 동사의 속성이 관여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¹⁰⁾

3. 인과적 관계

3.1. ‘전환’에서 ‘인과’로

‘다가’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두 사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환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런데 바뀌는 두 사태가 서로 무관한 경우도 있지만, 인과 관계에 놓이는 수도 있다.

- (24) 가. 철수가 밥을 먹다가 대통령 선거 이야기를 꺼냈다. (전환)
 나. 아기가 우유를 먹다가 잠이 들었다. (전환/인과)
 다. 철수가 급히 먹다가 체했다. (인과)

위의 예 (24가)는 오직 전환 관계로만 해석된다. ‘밥을 먹는’ 사태와 ‘선거 이야기를 꺼낸’ 사태 사이에 특별한 인과 관계를 상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세상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 때문이다. 반면 (24나)는, 아기가 잠이 든 것이 잠잘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라면 단순한 전환이겠지만, 우유를 먹은 포만감 때문이라면 인과적 관계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전환과 인과의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24다)는 오직 인과적으로만 해석된다. 밥을 급히 먹는 사태와 체하는 사태 사이의 경험과 세상에 대한 지식이 이러한 해석을 강요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보듯이, ‘다가’의 문장은 우리의 경험과 세상에 대한 지식 때문에 전환으로도 해석되고, 인과로도 해석된다. 두 해석이 가능한 중의적인 경우가 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는데, 이를 보면 인과적 해석이란 곧 세상의 경험과 지식에 의해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특수한 경우의 전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0) 이 논문의 한 심사자는 무효화 전환에 대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나, 우리는 무효화 전환이 무표적인 해석이라는 사실로 그 이유를 대신하고자 한다. 왜 무효화 전환의 해석을 가져야 하느냐에 대한 답을 딱히 꼬집어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 (25) 가. 동생을 돌보다가 결혼이 늦어졌다.
나. 동생을 돌보다가 결혼을 하였다.

(25가)는 인과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은 순전히 ‘동생을 돌보는’ 일과 ‘결혼이 늦어진’ 사태에 대한 세상의 지식 때문이다. ‘동생을 돌보다가’는 주체가 동생을 일정 시간 동안 계속해서 돌보아 왔음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결혼이 늦어졌다’는 주체가 평균적으로 보아 늦게 결혼하였거나 아니면 혼기를 놓쳐 아직 결혼하지 못한 상태로 있음을 의미한다. 동생들을 돌보다가 혼기를 놓친 예는 우리의 삶에서 흔히 경험하는 바이므로, 이러한 삶의 지식이 이 문장의 해석에 투영되는 것이다. 반면 (25나)는 인과적 해석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물론 동생들을 돌보다가 우연히 동생의 아는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인과적 해석이 가능하나,¹¹⁾ 이밖에도 단순히 동생을 돌보는 사태와 결혼을 한 사태가 순차적으로 일어났다는 전환의 해석도 가능하다. 이처럼 인과적 해석이 필수적이 아닌 것은, 두 사태 사이의 인과 관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예 (25)는 ‘다가’의 인과적 해석이 전환의 의미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결과임을 말해 주는 또 다른 증거라 하겠다.

일반적 전환이 인과 관계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 외에 언어적 특징도 한몫을 거드는 수가 있다. 앞의 예 (24다)가 인과적으로만 해석되는 것도 ‘먹는 것’과 ‘체한 것’ 사이의 현실적 지식 때문이지만, 부사 ‘급히’가 이러한 해석을 더욱 분명히 해 주고 있다. 그래서 ‘급히 -다가’와 같은 통사적 구성은 대부분 인과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보통이다.

- (26) 가. 차가 너무 오래 달리다가 엔진에 불이 붙었다.
나. 차가 달리다가 엔진에 불이 붙었다.

(26가)도 오직 인과 관계로만 해석되는데, 세상의 지식이 물론 이 해석에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인과적 해석을 낳는 데 충분한 것은 아니다. 만약 예 (26나)처럼 ‘너무 오래’와 같은 부사적 표현이 없다면, 엔진에 불이 붙은 원인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 때는 인과 관계가 아닌 단순한 전환으로의 해석도 가능하다. 따라서 (26가)의 인과적 해석에는 ‘너무 오래’와 같은 부사적 표현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다가’가 인과의 해석을 갖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한 지식만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너무’와 같은 정도 부사의 표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너무 -다가’는 아예 인과적 해석만을 허용하는 표현으로 굳어지게 된 것이다.

11) 이때에는 사실 ‘결혼을 하였다’보다 ‘결혼을 하게 되었다’가 더 자연스럽다.

전환이 인과로 해석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을 살펴보았다. 세상의 지식과 특정한 부사적 표현이 그것이다. 그런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어나는 계기적 사태가 인과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다가’에서만 있는 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이음씨끝 ‘니까’와 ‘어서’에서도 동일한 의미의 확대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 (27) 가. 내가 그곳에 도착하니까 이미 다들 가고 없더라. (계기)
나. 내가 그곳에 도착하니까 다들 놀라더라. (인과)

- (28) 가. 저녁 늦게 마을에 도착해서 이장님 댁을 찾아갔다. (계기)
나. 저녁 늦게 마을에 도착해서 모두들 피곤해 했다. (인과)

위에서 ‘니까’와 ‘어서’는 계기와 인과의 두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물론 이 두 의미는 후행절의 사태에 따라 구별되어 해석된다. 후행절이 달라짐에 따라 계기와 인과의 두 해석이 구분되는 것은 곧 후행절이 나타내는 세상의 지식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다가’의 경우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니까’와 ‘어서’에서 ‘계기’와 ‘인과’의 두 의미는 완전히 확립되어, 거의 독자적인 의미 기능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이 씨끝들이 계기와 인과의 두 의미를 공유하는 사실은 결코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계기와 인과 사이의 유사 관계가 작용하였음이 틀림없고, 만약 그렇다면 이 역시 ‘계기 → 인과’의 의미적 확대 현상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니까’나 ‘어서’의 경우, 세상에 대한 지식 때문에 계기적 해석이 일차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여기에 특정의 언어적 표현이 결합되면 계기 대신 인과의 해석이 생기는 것도 ‘다가’와 같다.

- (29) 가. 도착하니까 다들 가고 없더라. (계기)
나. 너무 늦게 도착하니까 다들 가고 없더라. (인과)

- (30) 가. 도착해서 그 사람을 못 만났다. (계기)
나. 너무 늦게 도착해서 그 사람을 못 만났다. (인과)

위의 예 (29), (30)의 (가)는 계기적 해석을 갖지만 여기에 ‘너무 늦게’와 같은 부사적 표현이 있을 경우, (나)처럼 인과적으로 해석된다. ‘너무-니까’나 ‘너무-어서’와 같은 통사적 구성도 ‘너무-다가’처럼 오직 인과적 해석만을 강요하는 표현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우리는 계기적 사태가 세상의 지식과 특정 언어적 표현의 도움을 얻어 인과적 사태로 해석될 수 있는 예를 ‘다가’, ‘니까’, ‘어서’ 등에서 확인하였다. 따라서 ‘다가’의 인과적 해석은 결코 ‘다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사태가 달라지는 것을 나타내는 여러 이음씨끝들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하겠

다.12)

3.2. 인과적 해석의 제약

인과 관계로 해석될 경우, 후행절의 사태는 주어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사태이다. 즉 주어의 의향이나 바람에 영향을 받지 않아, ‘예기치 않게’ 또는 ‘의지나 바람과는 반대로’ 일어나는 사태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후행절의 사태는 부정적인 내용을 담는 수가 많다. 물론 후행절이 언제나 부정적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의 발화에서 부정적 내용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주어의 의지에 반해서 일어나는 사태이기 때문일 것이다. 앞에서 든 예 (24다)의 ‘급히 먹다가 체했다’는 후행절 ‘체했다’가 주어의 의지에 반하여 일어난 사태를 나타내므로 인과로 해석될 수 있었으며, (24나)의 ‘아기가 우유를 먹다가 잠이 들었다’에 인과적 해석이 허용되는 것도 후행절 사태에 주어의 의지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24가)의 ‘철수가 밥을 먹다가 요즘의 화제 거리인 대통령 선거 이야기를 꺼냈다’의 후행절은 주어의 의지가 분명하게 포함된 행동이므로, 인과 관계 대신 오직 전환으로의 해석만 가능하였다. 물론 주어의 예상이나 의지 또는 바람에 어긋나게 일어나는 사태인 까닭에 피동사나 자동사가 많이 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아래의 예 (31)은 후행절 서술어로 능동의 타동사가 오는 경우이다.

(31)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었다.(사고를 냈다./...)

그러나 위의 예도 주어의 의지나 바람과는 상반되는 사태를 나타내는 점에서는 다른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또한 후행절이 적극적으로 주어의 의지를 드러낼 경우 비문이 되는데, 이 역시 인과 관계에서의 후행절이 지녀야 할 의미적 제약을 보여주는 경우라 하겠다. 아래 예 (32)가 이런 경우이다.

(32) 가. 늦잠 자다가 지각하겠다.
 나. 늦잠 자다가 지각하겠지?
 다. *늦잠 자다가 지각할래?
 라. *늦잠 자다가 지각해라.
 마. *늦잠 자다가 지각하자.

(32가)와 (32나)는 정문이지만, 들을이(주어)의 의지를 반영하는 (32다)-(32마)는 모두 비문이 되었다. 이것은 결국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다가’에 주어의 의지가 개

12) 영어의 since도 ‘계기’와 ‘이유’의 의미를 갖는 점에서 같다. 또한 while과 같은 시간 표현도 ‘이유’의 의미를 함께 갖는다. 이런 점을 보면 ‘계기’에서 ‘인과’로, 또는 ‘시간 표현’에서 ‘인과’로의 의미 확대는 범언어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보편적 의미 변화라 하겠다.

입되는 동사가 올 수 없음을 말해 준다.¹³⁾ 물론 전환의 해석에는 주어의 의지가 없는 경우도 가능하므로, 주어의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 사태는 전환과 인과의 해석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한 셈이다.

인과의 해석을 갖는 ‘다가’는 전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원칙적으로 같아야 한다. 또한 후행절이 이중 주어 구문을 형성하거나 후행절 주어가 선행절 주어의 일부일 때, 동일 주어 제약을 지켜야 하는 점도 전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33) 가. *아기가 울다가 엄마가 지쳤다.

나. 철수가 술을 너무 먹다가 간이 나빠졌다.

다. 철수가 10시간 이상을 쉬지 않고 차를 몰다가 차 엔진에 불이 붙고 말았다.

라. 둘이 싸우다가 한 사람이 크게 다쳤다.

위의 예 (33)에서 (가)는 두 절의 주어가 달라서 비문이 되었다. 반면 (나)-(다)는 후행절의 주어가 이중 주어 구문의 소주어인 경우이며, (라)는 후행절 주어가 선행절 주어의 일부를 이루는 경우로서 모두 옳은 문장으로 쓰이고 있다.

한편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다를 경우, 서술어가 같거나 유사하면 전환(특히 ‘대조’)의 해석이 가능하였는데, 이런 경우는 결코 인과 관계로 해석되지 않는다. 아래 예 (34)는 주체나 시간적 배경의 대조를 보이는 경우인데, 인과의 해석을 가질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아마도 대조가 대등 접속에 속하는 관계이므로, 종속 접속에 속하는 인과와는 어울리기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다가’에 의한 인과 관계는 두 절의 주어가 같아야 하는 제약이 필수적인 셈이다.

(34) 가. *아까는 철수가 잠이 들다가 지금은 영수가 잠이 들었다.(인과)

나. *어제는 철수가 아프다가 오늘은 영수가 아팠다.(인과)

그러나 경우에 따라 선·후행절의 주어가 다를지라도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예가 있기도 하다. 아래 예를 보자.

(35) 가. ?철수가 까불다가 옆에 있던 영수가 대신 야단을 들었다.

나. ?철수가 까불다가 반 전체가 단체 기합을 받았다.

13) 그러나 ‘-어서’와 ‘-니까’에는 주어의 의지가 개입될 수 있다. 아래의 예가 이를 보여 준다.

(예) 가. 너무 몸이 피곤해서 목욕이나 해야겠다.

나. 피곤하니까 일찍 자자.

이것은 결국 같은 인과 관계라 하더라도 씨끝에 따라 가해지는 의미적 제약이 다르며, 더 나아가 한국어의 씨끝들은 저마다 고유한 통사, 의미적 제약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위에 든 (35)의 두 예는 약간 어색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비문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장들이다. 우리는 이 예들을 용인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자 하는데, 그렇다면 겉으로 보기에 주어가 다른 이런 예들을 인과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간주하는 셈이다. 그러나 위의 예에 나타난 후행절 주어는 선행절 주어와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그 지위가 특수하다. 즉 (35가)에 쓰인 ‘옆에 있던’은 바로 ‘철수 옆에 있던’이며, 부사 ‘대신’은 ‘철수 대신’인 것이다. 또한 (35나)의 후행절 주어 ‘반’은 다른 아닌 선행절 주어 ‘철수의 반’이다. 이처럼 의미적으로 선·후행절 주어가 서로 관련을 맺을 때, 비록 그 주어가 통사적으로 다르게 보일지라도 인과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선·후행절이 주어를 공유하는 경우, 인과의 해석이 가능했던 예 (33)의 경우와 그 성격이 같다. 이 중 주어 구문의 대주어를 공유하는 경우는 선·후행절의 주어가 맺는 관계가 직접적이지만, 이보다 느슨하면서도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는 예 (35)도 인과의 해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결국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는 (35)의 경우는 비록 전환의 해석은 가질 수 없지만, 인과적 해석은 가능한 셈이다.¹⁴⁾

주어가 같은 전환 관계에서, ‘없다가’는 ‘다가’와 달리 서술어에 따라 후행절 서술어가 선행절 사태를 무효화시키는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인과 관계의 해석에서는 이러한 제약은 적용되지 않아서, ‘없다가’는 어떤 서술어를 막론하고 자유롭게 인과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 (36) 가.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봤다가 잠이 들었다.
나.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봤다가 아버지께 야단을 맞았다.
- (37) 가. *어제 저녁 술을 먹었다가 친구를 우연히 만났다.
나. 어제 저녁 술을 먹었다가 배탈이 나서 혼이 났다.
- (38) 가. *그 친구는 어제 저녁 복권을 샀다가 길에서 넘어졌다.
나. 그 친구는 어제 저녁 복권을 샀다가 돈벼락을 맞았다.

위의 예 (36)-(38)에서, 전환의 해석이 요구되는 (가)에는 ‘없다가’가 쓰이지 못하지만, (나)처럼 인과적 해석인 경우에는 ‘없다가’의 쓰임이 자연스럽다. 이것은 곧 인과 관계를 보이는 ‘없다가’의 후행절 서술어에 별다른 의미적 제약이 가해지지 않

14) 野間秀樹(1993/2002, p. 204)에서는 아래 예와 같은 경우에는 주어의 동일 제약이 지켜지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 ‘끝난’ 것은 결혼식이므로 ‘올다가’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예) 결혼식 날은 왜 그리 눈물이 쏟아지던지, 시종 올다가 끝나 버리고 말았어요.

위의 예에서 ‘다가’는 인과가 아닌 전환의 유형에 속하는 것인데, 그러나 아래 예처럼 인과의 경우에도 비슷한 예가 있다. 대체로 시간과 관련된 후행절에서 이러한 제약의 이탈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예) 편지를 쓰다가 하루가 다 갔다.

음을 보여 주는데, 이에 따라 ‘-었다가’는 전환보다 인과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때가 많다. 이 점에서 보면 ‘-었다가’의 무표적 해석은 전환보다는 인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¹⁵⁾

이처럼 ‘-었다가’가 인과의 무표적 형태로 쓰일 수 있는 것은 ‘-다가’가 인과 관계로 해석될 때 후행절은 대체로 과거시제를 갖기 때문이다(이은경, 1990).¹⁶⁾

- (39) 가. *술을 너무 많이 먹다가 배탈이 난다.
나. 술을 너무 많이 먹다가 배탈이 났다.

위의 예는 ‘너무 많이’라는 부사적 표현 때문에 인과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데도 (39가)는 비문이 되는데 그것은 순전히 후행절 시제가 현재이기 때문이다. 과거시제가 쓰인 (39나)는 반대로 정문이 되었다. 이처럼 인과 관계는 대개 후행절 시제가 과거인 것이 보통인데, 그러다 보니 선행절 시제는 절대시제의 관점에서 볼 때 과거 또는 대과거일 수밖에 없다. 다만 후행절 시제의 통제 여부에 따라 ‘-었-’이 수의적으로 나타날 뿐이다. (39나)가 ‘-었-’이 출현하지 않는 예라면, (38나)는 ‘-었-’이 출현한 예이다. ‘-었다가’의 무표적 해석이 인과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말의 이음씨끝에는 단절을 통하여 강조의 효과를 수행하는 ‘-는’이 덧붙는 경우가 있다(이기갑, 2001). 이 ‘-는’은 대체로 연속적인 사태를 나타내는 경우에 붙는 것이 보통인데, 그러나 ‘-다가’의 경우 전환에서는 이 ‘-는’이 결합될 수 있지만 인과에서는 결합되지 않는다.¹⁷⁾

15) 아래와 같은 문장은 인과적으로 쓰인 것인데, ‘-었다가’가 쓰일 수 없다.

- (예) 가. *철수가 불을 켜다가 화상을 입었다.
나. *철수가 불장난을 했다가 산불을 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이재성(1994, p. 174)에서 올바르게 지적한 바와 같이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불을 다 끈 뒤에 화상을 입을 수 없고, 불장난을 마친 뒤에 산불을 내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현실 때문이라 하겠다. 만약 후행절을 ‘야단맞다’나 ‘꾸중듣다’와 같은 문장으로 바꾸면 당연히 정문이 된다. 아래 예가 이를 보여 준다.

- (예) 가. 철수는 불을 켜다가 옆 사람에게 야단을 맞았다.
나. 철수는 불장난을 했다가 아버지께 꾸중을 들었다.

16) 그러나 경우에 따라 과거가 아닌 경우도 가능하다. 아래 예는 현재 시제 또는 현재 추정의 후행절임에도 정문을 형성한 경우이다. 그러나 비과거 시제가 와서 인과적으로 해석되는 정확한 환경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

- (예) 가. 술을 너무 먹다가 저래.
나. 늦잠 자다가 늦겠다.

17) 아래 예는 선행절의 사태가 지속되는 도중에 후행절 사태가 오는 경우인데 ‘-는’이 오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반면 ‘-는’이 결합되면 전환 대신 조건의 해석만이 가능하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조건의 경우 후행절의 추정 양태가 선행절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는’이 없는 전환에서는 추정의 양태가 선행절까지 효력을 미친다는 점이다. 즉 [[술 먹고 운전하다가 죽]을 것이다]와 같은 구조 분석이 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는’이 없기 때문에 ‘-는’이 갖는 단절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는’은 후행절의 추정 양태가 선행절까지 효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 (40) 가. 바람이 불다가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전환)
- 나. 고기를 잡았다가는 다시 강에 넣어 주었다.(전환)
- 다. *강의 시간 중에 즐다가는 야단을 맞았다.(인과)
- 라. *너무 많이 먹었다가는 배탈이 났다.(인과)

위의 예 (다)와 (라)는 인과의 뜻으로 해석될 경우 비문이 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기도 하다.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건으로 쓰이는 ‘다가는’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 (40)의 (다)와 (라)에서 후행절 시제가 현재로 바뀌면 조건의 해석을 갖는다. 아래 예 (41)이 이를 보여 준다.

- (41) 가. 강의 시간 중에 즐다가는 야단을 맞는다.
- 나. 너무 많이 먹었다가는 배탈이 난다.

의미론적으로 인과에 ‘는’이 덧붙어서 강조를 나타내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도 ‘다가는’이 전환과 조건으로만 해석될 뿐, 인과의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인과와 조건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기 때문이다. 후술하겠지만 인과와 조건의 의미 관계는 가정된 세계만이 다를 뿐 그 의미 관계는 흡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는’이 결합되어 조건의 해석을 선점하게 됨으로써 인과의 강조가 드러날 여지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과 관계를 보이는 ‘니까’나 ‘어서’의 경우, 아래 예 (42)에서와 같이 ‘니까’에는 강조의 ‘는’이 결합될 수 있지만, ‘어서’에는 결합되지 않는다.

- (42) 가. 비가 오니까는 다들 돌아갔다.
- 나. *비가 와서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다.

예 (42가)에서 보듯이 ‘니까’에 강조의 ‘는’이 붙는 것은 곧 인과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의미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는 ‘는’이 결합되지 못하는데, 이것은 ‘어서’에 ‘는’이 결합하면 조건의 해석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어서’도 ‘다가’와 마찬가지로 인과관계에서는 ‘는’이 결합되지 못하지만 조건에서는 ‘는’이 필수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¹⁸⁾ 따라서 인과 관계의 ‘어서’에 ‘는’이 결합되어 강조를 나타낸다면 조건의 해석과 충돌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는’이 결합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예) 가. 술 먹고 운전하다가 죽을 것이다.(전환)
 나. 술 먹고 운전하다가는 죽을 것이다.(조건)

한편 보조사 ‘도’는 ‘다가’에 붙을 수 있는데, 이 때는 오직 전환 관계로만 해석된다.

(예) 잘 먹다가도 괜히 심술을 부릴 때가 있어.

18) ‘어서’와 의미가 같은 ‘어 가지고’에는 강조의 ‘는’이 결합될 수 있다. ‘어 가지고는’이 조건의 해석을 갖지 못하므로 이때의 ‘는’이 강조로 해석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인과 관계의 ‘다가’는 전환의 ‘다가’와는 부분적으로 공통점을 보이지만, 또 부분적으로는 전혀 다른 제약을 보인다. 선행절의 주어가 같아야 되는 제약은 전환과 같지만, 후행절의 의미 내용이 주어의 의지와 무관해야 한다거나, ‘있다’의 후행절이 선행절 사태를 굳이 무효화시킬 필요가 없다거나, 단절의 ‘는’이 ‘다가’에 붙지 못하는 것 등은 오직 인과 관계의 ‘다가’에서만 찾아지는 제약이었다. 그러나 인과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제약 가운데 주어의 의지에 무관한 후행절 내용을 가져야 하고, 단절 표지 ‘는’과 결합할 수 없는 제약 등은 인과 관계를 보이는 ‘어서’나 ‘니까’에는 적용되지 않는 제약이다. 이것은 곧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다가’가 전환의 ‘다가’로부터 확대되어 생겨난 것이기는 하지만, ‘전환’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기능인 ‘인과’의 의미를 획득했음을 말해 준다. 또한 ‘다가’의 인과 관계는 ‘어서’나 ‘니까’의 관계와도 다른 것이어서, 인과 관계의 ‘다가’가 보이는 여러 통사, 의미적 제약이 인과 관계가 갖는 일반적 제약이 아니라, ‘다가’의 고유한 제약임을 말해 준다. 이처럼 인과 관계의 ‘다가’는 한편으로 전환의 ‘다가’와도 달라졌고, 다른 인과 관계와도 구분되는 독자적인 의미 영역을 확보한 셈이다.

4. 조 건

4.1. ‘인과’에서 ‘조건’으로

(43) 가. 저렇게 먹다가(는) 큰일이 나겠는걸.

나. 저렇게 놀기만 하다가(는) 대학에 떨어지는 것 아니야?

위의 예는 발화 당시에 주체가 각각 ‘먹고 있거나’, ‘놀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만약 그러한 사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 후행절의 사태인 ‘큰일’이 일어나거나 ‘대학에 떨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의 ‘다가’는 일종의 조건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다가’가 조건의 해석을 가질 경우에는 보조사 ‘는’이 덧붙는 수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즉 위의 (43)에서 ‘다가’를 ‘다가는’으로 바꾸어도 올바른 문장이 된다. 그러므로 조건의 해석을 갖는 ‘다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는 어떻게 해서 ‘다가’가 조건의 해석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조건은 ‘다가’의 원초적 의미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다른 의미로부터 확대된 것으로 보아야 할 텐데, 그 확대 과정이 자못 궁금한 바 있다. 두 번째 문제는 보조사 ‘는’이 결합되는 이유를 따져 보아야 한다. ‘는’이 결합되어 조건의 해석이 강화된다면, ‘는’과 조건 사이에는 모종의 상관관계가 개재되어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이다.

우선 ‘다가’의 의미 확대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 의미 확대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은 조건 관계와 인과 관계가 의미적으로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이다.

인과 관계는 [이유]와 [결과]를 구성 요소로 가지며, 조건 관계는 [전건]과 [후건]의 구성 요소를 갖는다. 조건 관계의 전건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사태를 가정하는 것이며, 후건은 이 가정된 사태로 인해 뒤따를 결과적 사태를 뜻한다. 전건과 후건이 언제나 인과적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인과 관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관계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조건의 [전건]이 가정된 사태라면, 인과 관계의 [이유]는 실제의 사태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¹⁹⁾ 조건과 인과 관계 사이의 이러한 유사점 때문에 ‘다가’는 조건이라는 또 하나의 의미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획득된 조건의 의미는 조사 ‘는’의 결합과 함께 더 강화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 (44) 가. 쉬지 않고 일만 *하다가(는) 병이 난다.²⁰⁾
 나. 쉬지 않고 일만 *하다가(는) 병이 날거야.
 다. 쉬지 않고 일만 *하다가(*는) 병이 났다.(조건의 의미로)
 라. 쉬지 않고 일만 *했다가(는) 아마도 큰 병이 났을거야.²¹⁾

예 (44)에서 (가)와 (나)는 현재시제로서 단언과 추정을 각각 나타내고, (다)와 (라)는 과거의 단언과 추정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다가는’은 오직 과거의 단언에서만 비문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조건은 가정된 세계를 전제하는 것이므로, 조건의 후건은 단언보다는 추정의 양태를 갖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특히 과거의 단언이란 이미 이루어진 사태를 말하는 것이므로 조건의 후건으로 오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다.²²⁾

한편 예 (44)는 (43)과 달리 반드시 ‘다가’에 ‘는’이 결합한 형 ‘다가는’이 와야 함을 보여 준다. ‘다가는’ 대신 ‘다가’를 사용하면 (44)의 모든 문장이 비문을 만들

19) 그러나 이 말은 국어에서 조건을 나타낸다고 믿어지는 이음씨끝 ‘으면’이 언제나 가정된 세계에서의 인과로 해석된다는 뜻은 아니다. ‘으면’ 가운데 언어 행위나 공간적 배경, 또는 시간을 나타내는 ‘으면’은 이러한 인과 관계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Bak, 2003).

(예) 가. 솔직히 말하면, 존은 시험에 떨어졌다.(언어 행위)
 나. 인사동에 가 보면, 골동품이 많다.(공간적 배경)
 다. 봄이 오면 꽃이 핀다.(시간)

20) 이 예의 *하다가(는)은 ‘쉬지 않고 일만 하다가 병이 난다’는 비문이지만, ‘쉬지 않고 일만 하다가는 병이 난다’는 정문이 됨을 의미한다.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1) 한 심사자는 ‘다가는’의 ‘는’ 대신 쉼(pause)을 두어도 조건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쉼이 주제 표시 ‘는’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 ‘다가는’에서도 같은 현상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쉼을 길게 두더라도 (44)의 (라)처럼 ‘였다가’가 쓰인 경우에는 조건의 해석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인과 관계로의 해석은 매우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그렇다면 쉼이 ‘는’을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조건의 강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조건의 강도가 비교적 약한 경우에는 쉼이 ‘는’을 대신할 수 있지만, 조건의 강도가 가장 큰 반사실 조건에서는 쉼이 ‘는’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건의 강도에 대해서는 (52) 참조.

22) 그러나 ‘으면’의 후행절에 과거의 단언이 오는 수가 있기는 하다. 다만 이 때의 ‘으면’은 전형적인 조건으로 해석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즉 아래 예의 ‘오면’은 ‘을 때에는’처럼 ‘때’를 나타낼 뿐이다.

(예) 비가 오면 강가로 나가곤 했다.

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가’가 조건의 해석을 가질 때 ‘는’의 결합이 필수적인 경우와 수의적인 경우의 두 가지가 있는 셈이다. (44)가 전자의 예라면 (43)은 후자의 예인 것이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는’의 결합성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일까?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43)과 같이 지시어를 포함하고 있는 새로운 예를 검토하기로 하자.

(45) 가. 저렇게 먹다가(는) 큰일 나게?

나. 저렇게 먹다가(는) 큰일 난다.

다. 저렇게 먹다가(는) 큰일 날 것이다.

예 (45)처럼 선행절에 지시적 표현이 있을 경우의 조건이란 발화 당시에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인정하면서 그러한 사태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경우를 가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시어가 있는 조건은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사태의 인정’이라는 부분이 더 포함되는 점에서 일반적인 조건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지시어를 통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사태의 인정’이라는 사실 부분을 포함하는 경우를 ‘사실 조건’이라 부른다면, 사실 조건은 결국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사실’과, 그 사실로서의 사태가 앞으로 계속된다는 ‘조건’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셈이다.²³⁾

(44)에서 보듯이 지시어가 없는 조건은 ‘다가는’만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사실에 기초한 인과 관계에서는 ‘다가’만이 허용되었음은 (40나)에서 확인한 바 있다. 그렇다면 (43), (45)에서처럼 사실 조건이 ‘다가’와 ‘다가는’을 모두 허용하는 것은 사실 조건이 포함하고 있는 ‘사실’과 ‘조건’의 두 요소 때문임은 쉽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실 조건의 ‘사실’ 때문에 ‘다가’가 허용되고, ‘조건’ 때문에 ‘다가는’이 허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점에서 보면 (43), (45)와 같이 지시어를 포함하는 사실 조건의 예들은 ‘인과’에서 ‘조건’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단계를 보여 주고 있는 셈이다.

지시어가 없어 발화 상황으로부터 독립적인 경우를 예를 달리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46) 가. 줄면서 운전하다가는(*운전하다가) 큰일 난다.

나. 줄면서 운전하다가는(*운전하다가) 큰일 나지.

다. 줄면서 운전하다가는(*운전하다가) 큰일 나겠다.

라. 줄면서 운전하다가는(*운전하다가) 큰일 날 것이다.

23) ‘사실 조건’이 언제나 지시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발화 상황에 기초한 조건은 지시어의 유무에 관계없이 언제나 ‘사실 조건’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아래 예처럼 지시어가 없더라도 발화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태에 근거한 조건일 경우, 사실 조건의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46)은 선행절에 아무런 지시어가 없으므로 특정 발화 상황에 기초한 조건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태의 조건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를 ‘비사실 조건’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점에서 ‘비사실’이다. 앞에서 든 예 (44) 역시 비사실 조건을 표현하고 있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44)와 같은 비사실 조건에서는 ‘다가는’만이 허용된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었다. 이 점은 (46)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비사실 조건은 사실 조건과 달리 발화 당시의 사실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전형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보면 전형적인 조건은 ‘다가는’으로 표현될 뿐 ‘다가’로 표현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는’의 결합이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는’은 우리말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주제란 일반적으로 조건의 해석을 동반하는 수가 많다. 예를 들어 다음을 보기로 하자.

- (47) 가. 사실은 내가 잘못했어.
- 나. 커피는 잠이 안 와.

위의 예에서 ‘사실은’은 ‘사실을 말하면’으로 해석되고, ‘커피는’은 ‘커피를 마시면’으로 해석된다. 주제란 언급의 대상을 지칭하므로, 그것은 곧 무엇에 대해 ‘말한다면’이나 무엇에 대해 ‘말하자면’처럼 ‘말하다’ 동사의 조건형으로 바뀌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제 표시 ‘는’이 ‘다가’처럼 이음씨끝에 결합될 경우 언급의 대상과 같은 ‘말하다’의 조건적 해석은 허용하지 않지만, 일반적 조건의 해석은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다가는’이 조건의 해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²⁴⁾ 다만 ‘는’이 ‘다가’에 결합되었으므로 ‘-으면’과 같은 조건의 이음씨끝과는 의미 차이를 보이게 된다.

- (48) 가. 졸면서 운전하면 큰일 나.
- 나. 졸면서 운전하다가는 큰일 나.

위의 예 (48나)는 (48가)에 비해 운전하는 동작이 한동안 지속되는 상황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런 의미 해석은 순전히 ‘다가’가 가졌던 원래의 의미 때문이다. 그래서 ‘다가는’은 ‘다가’의 의미에 ‘는’이 부여한 조건의 해석이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 (49) 가. 졸면서 운전하다가(?는) 큰일 나게?
- 나. 졸면서 운전하다가(?는) 큰일 나려고?

예 (49)는 비록 비사실 조건으로 해석되더라도 ‘다가는’과 함께 ‘다가’가 허용되는

24) ‘어서’에 ‘는’이 결합되면 조건의 해석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역시 같은 현상이라 하겠다.

- (예) 가. 저래서는 안 되는데.
- 나. 공부만 해서는 큰 사람이 못 돼.

점에서 (46)과는 구별된다. 오히려 ‘다가는’보다는 ‘다가’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그런데 (49)의 통사적 특징은 후행절이 ‘게’나 ‘으려고’와 같은 확인 물음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확인 물음은 정상적인 서술에 비해 단언의 강도가 강한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큰일 나게?’는 ‘큰일 난다’의 단언이나 ‘큰일 나지’의 추정보다 말할이의 확신의 강도가 더 크다는 것이다. ‘큰일 난다’는 단순히 말할이의 확신을 보여 주지만, ‘큰일 나게?’는 말할이의 확신과 함께 들을이에게도 그 확신을 공유하거나 확인하려는 말할이의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46)에서 우리는 비사실 조건의 해석을 가질 경우 ‘다가’는 불가능하고 ‘다가는’만이 가능하다고 가정할 바 있다. 그런데 (49)처럼 말할이의 강한 확신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가’도 허용되는 수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다가’와 ‘다가는’의 허용 가능성을 결정하는 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작용하는 셈이다. 선행절에서 표현되는 사실성이나 조건성의 여부가 그 하나이다. 조건성이 커질수록(또는 사실성이 약할수록) ‘다가는’이 허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구별되는 또 다른 요소는 후행절의 양태이다. 즉 말할이의 확신의 정도에 따라, 확신이 강할수록(또는 추정이 약할수록) ‘다가’가 선택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서로 다른 이 두 가지 요소의 결합에 의해 ‘다가’와 ‘다가는’의 선택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조건이 작용하는 세계는 가정된 세계이므로 조건 관계의 후건은 사실 세계에 기초한 인과 관계에 비해 약한 확신, 즉 추정을 포함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따라서 말할이의 확신이 강할수록 인과 관계로의 해석이 자연스럽고, 추정이 강할수록 조건 관계로의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49)는 확인 물음 때문에 후행절에 나타난 말할이의 확신은 어느 것보다도 강하게 느껴지며, 이 때문에 원래 불가능하였던 ‘다가’도 가능성을 얻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가’에 ‘었’이 결합할 경우 비사실 조건과 실제의 사태에 반하는 반사실 조건의 두 해석이 가능하다.

- (50) 가. 줄면서 운전을 했다가는(했다가) 큰일 나게?
 나. 줄면서 운전을 했다가는(*했다가) 큰일 난다.
 다. 줄면서 운전을 했다가는(*?했다가) 큰일 나지.
 라. 줄면서 운전을 했다가는(*했다가) 큰일 나겠다.
 마. 줄면서 운전을 했다가는(*했다가) 큰일 날 것이다.

- (51) 가. 어제 줄면서 운전을 했다가는(*했다가) 큰일 났게?
 나. 어제 줄면서 운전을 했다가는(*했다가) 큰일 났다.²⁵⁾
 다. 어제 줄면서 운전을 했다가는(*했다가) 큰일 났지.

25) 그러나 특수한 경우 ‘었다’가 오는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미래에 대한 단언을 나타내는 ‘었’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 때의 ‘었’이 과거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자명하다.

(예) 어제 그 술을 다 먹었다가는 지금쯤 우리 다 죽었다.

- 라. 어제 졸면서 운전을 했다가는(*했다가) 큰일 났겠다.
 마. 어제 졸면서 운전을 했다가는(*했다가) 큰일 났을 것이다.

(50)은 비사실 조건으로서 ‘었-’이 없는 경우와 의미상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후행절에 드러난 확신의 정도에 따른 문법성도 (46), (49)에서 보인 경우와 다를 바 없다. 한편 (51)은 반사실 조건의 경우이다. 어제는 실제로 졸면서 운전을 하지 않았지만, 만약 졸면서 운전을 했더라면 하는 사실에 반하는 가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에는 ‘었다가’가 전혀 불가능하고 오직 ‘었다가는’만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는’은 필수적으로 ‘다가’에 결합되어야 한다. (51가)처럼 ‘큰일 났게?’와 같은 수사적 물음이 후행절에 오더라도 ‘다가’가 쓰이면 비문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비사실 조건인 (50가)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반사실 조건은 실제 일어난 사실에 반하는 사태를 가정하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반사실 조건이야말로 실제의 사실과 가장 거리가 먼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비사실 조건은 실제 일어난 사태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이를 문제 삼지도 않는다. 그래서 비사실 조건의 상황은 실제의 사태와 거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사실 조건처럼 멀다고는 할 수 없다. 반면 사실 조건은 실제의 사태를 전제하므로 실제와 가장 가까운 상황이라 할만하다. 실제의 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을 1로 표현한다면, 사실 조건은 1, 비사실 조건은 0, 반사실 조건은 -1인 셈이다. 조건성이란 사실로부터의 거리에 비례하여 그 강도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조건보다는 비사실 조건이, 그리고 비사실 조건보다는 반사실 조건의 조건성이 큰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성이 클수록 ‘다가는’의 사용 경향은 커지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사실 조건에서는 예외 없이 ‘다가는’만이 쓰였고, 비사실 조건에서는 부분적으로 ‘다가’가 허용되었으며, 사실 조건에서는 ‘다가’와 ‘다가는’이 수의적으로 교체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관계를 더욱 확대해서 사실 조건보다도 더 약한 조건성을 상정할 경우, 그것은 곧 순전한 사실 관계에 이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다가는’은 허용되지 않고 ‘다가’만이 허용되게 될 것이다. 앞에서 논의했던 ‘인과 관계’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조건의 강도는 아래 (52)와 같이 그 정도 차이가 있는 셈이다.

(52) 사실(인과) < 사실 조건 < 비사실 조건 < 반사실 조건

위의 정도 표시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사실성은 증가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조건성은 증가한다. 그러므로 왼쪽으로 갈수록 ‘다가’로 쓰이는 경향이 강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다가는’으로 쓰이는 경향이 강하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후행절에 나타나는 말함이의 확신 정도도 ‘다가’와 ‘다가는’의 쓰임새에 영향을 미친다. 즉 확신이 강할수록 ‘다가’로 쓰이고 확신이 약할수록 ‘다가는’으로 쓰인다. 바꿔 말하면 추정이 강할수록 ‘다가는’으로 쓰이고, 추정이 약해서 확신의 정도가 커지면 ‘다가’로 쓰이는 경향이 커지

게 되는 것이다. 추정과 관련된 표현들에서 확신의 정도 차이는 다음의 (53)과 같이 상정할 수 있다.

(53) -었다 > -게? > -는다 > -지 > -겠다

여기서 ‘-었다’는 과거에 일어난 실제 사태이므로 가장 강한 확신을 담을 수 있다. ‘-게’와 ‘-는다’는 확신의 정도에서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확인 물음이라는 점에서 단순 서술문보다는 확신이 더 강하다고 하겠다. ‘-지’와 ‘-겠다’는 모두 추정을 나타내는 점에서 ‘-는다’나 ‘-게?’보다 확신의 정도가 떨어질 것은 너무도 당연하나, ‘-지’와 ‘-겠다’ 사이의 구별은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 두 형태 모두 ‘-다가’와 ‘-다가는’의 선택에서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은 직관에 따라 ‘-지’가 ‘-겠다’에 비해 확신의 강도가 큰 것으로 간주하였다.

‘-다가’와 ‘-다가는’의 선택을 결정하는 선행절의 조건성과 후행절의 확신성(또는 추정성)을 모두 고려한다면 다음의 표 1과 같이 될 것이다.

<표 1> 조건성과 추정성의 정도에 따른 ‘는’의 결합성(‘인과/조건’의 해석에서)

조건성	추정성				
	-었다	-게?	-는다	-지	-겠다
사실(인과)	-다가	x	x	x	x
사실 조건	x	-다가(?는)	-다가(는)	-다가(는)	-다가(는)
비사실 조건	x	-다가(?는)	-다가는	-다가는	-다가는
반사실 조건	x	-다가는	-다가는	-다가는	-다가는

위의 표 1에서 세로는 선행절에 나타난 조건성의 정도를 보여 준다. 아래로 갈수록 사실성은 약해지고 반대로 조건성은 강해진다. 조건성이 강해질수록 ‘-다가’보다 ‘-다가는’이 선택되는 경향이 있음을 위 표는 보여 준다. 한편 가로는 후행절에 나타난 양태, 즉 말할이의 확신의 강도를 보여 준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확신은 약해지고 반대로 추정은 강해진다. 추정이 강해질수록 ‘-다가’보다는 ‘-다가는’이 선택된다. 따라서 ‘-다가는’은 결국 선행절의 조건성이 강할수록, 그리고 후행절의 추정성이 강할수록 선택되며, 반대로 선행절의 조건성이 약할수록 그리고 후행절의 확신성이 강할수록 ‘-다가’가 선택되게 된다. 그래서 가장 강한 사실성과 가장 강한 확신성은 위의 표의 맨 왼쪽, 맨 위 칸을 가리키게 되는데, 이곳이야말로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곳이다. 반대로 사실성이 가장 약하고 확신성이 가장 약한 칸은 위의 표의 맨 오른쪽, 맨 아래 칸을 말하므로, 이곳이야말로 가장 전형적인 조건 구문이라 하겠다. 이곳은 반사실 조건을 나타내며 후행절은 추정을 가지므로, 예를 들어 ‘어제 그 술을 다 먹었다가는 오늘 일어나지도 못 했을지 모른다’와 같은 문장이 여기

에 해당될 것이다.

인과적 해석을 가졌던 ‘다가’는 후행절 술어의 양태 등의 영향으로 손쉽게 조건의 해석을 허용하게 된다. 그리고 일단 조건의 해석을 갖게 된 ‘다가’에는 조사 ‘는’이 결합됨으로써 조건의 해석을 강화하는데, 위의 표에서 보듯이 발화 상황을 지시하는 표현이 있는 사실 조건에서는 수의적이었던 ‘는’이 비사실 조건에서는 씨끝에 따라 필수적으로 결합되다가 급기야는 반사실 조건에 이르러 완전히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 버렸다. 이런 경우에는 ‘다가는’이 마치 하나의 씨끝처럼 굳어져 쓰이게 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보면 전환과 인과의 해석에서 ‘다가’로 쓰였던 씨끝이 조건에 이르러서는 ‘다가(는)’의 과정을 거쳐 ‘다가는’으로 재구조화 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아래 (54)와 같은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다.

(54) -다가 → -다가(는) → -다가는

4.2. 조건적 해석의 제약

‘다가’의 전환이나 인과적 해석에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원칙적으로 같아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조건 관계에서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굳이 같아야 할 필요는 없다. 아래 예 (55)가 이를 보인다.

(55) 가. 자이언츠가 저런 식으로 하다가는 엔젤스가 우승하겠는데.
나. 저렇게 밥을 먹다가는 쌀이 금방 떨어지겠는걸.

인과 관계는 주어의 의지, 예상, 바람 등에 반하는 후행절이 오는 것이 특징이었다. 반면 조건 관계에서는 주어가 아닌 말할이의 의지, 예상, 바람 등에 반하는 사태가 후행절에 온다는 점이 다르다.

(56) 가. 저렇게 회사를 관리하다가는 경쟁 회사가 멀지 않아 시장을 석권하겠는걸.
나.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다가는 금방 일등 하겠다.

위의 예 (56)에서 후행절은 능동적인 동사가 사용되기는 했지만, 그 내용은 말할이의 바람이나 예상에 반하는 것이다. (56가)의 후행절은 말할이의 바람에 반하고, (56나)는 말할이의 예상에 반하는 사태를 가리킨다. 즉 (56나)의 ‘일등 하는’ 사태는 말할이가 바라는 바이지만, ‘일등 하리라는’ 예상은 애초에 없었던 것이므로 (56나)가 정문이 된 것이다.

‘다가(는)’이 조건으로 해석될 경우, 후행절 서술어로서 주어의 의향이 포함된 명령이나 청유 그리고 단정적인 물음의 서법 등은 오지 못한다. 다만 (57라)와 같은 수사적 물음이나 (57마)처럼 추정의 물음문은 가능하다.

- (57) 가. *그렇게 놀다가는 대학에 가거라.
 나. *그렇게 놀다가는 대학에 가자.
 다. *그렇게 놀다가는 대학에 가니?
 라. 그렇게 놀다가(는) 어디 대학에 가겠니?
 마. 그렇게 놀다가(는) 대학에 못 가는 것 아니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과의 해석에서도 의지적 서법이 오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조건적 해석이 갖는 이러한 제약은 인과의 해석과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다.²⁶⁾ 또한 (56)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조건적 해석에서는 말할이의 의지나 바람 또는 예상에 반하는 후행절이 와야 했는데, 인과의 경우 말할이가 아닌 주어의 의지나 바람, 예상이 문제되었던 점만을 제외하면 완전히 동일한 제약이라 하겠다. 이처럼 ‘다가(는)’의 조건적 해석이 ‘다가’의 인과적 해석과 의미적 제약에서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두 의미 관계가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말해 준다. 우리는 ‘다가’의 조건적 해석이 인과적 해석으로부터 발달한 것으로 가정하여 왔는데, 두 해석이 보이는 동일한 제약은 이러한 우리의 가정을 명백히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5. 나 열

‘다가’가 사태의 나열을 나타낼 때는 ‘다가’가 반복되며, 그 뒤에 ‘하’나 ‘그러하’와 같은 대응어가 오는 것이 특징이다. 아래 예 (58)에서 이러한 구조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 (58) 가. 광주에서 좀 살다가 서울에 올라왔다가 다시 광주로 내려가서 살다가 그랬지.
 나. 이 옷은 큰애가 입다가 작은애가 입다가 해서 많이 낡아졌다.
 다. 할머니가 걷다가 쉬다가 하면서 고갯길을 올라오신다.
 라. 옷다가 울다가 하면서 소설책을 다 읽었다.

‘다가’가 갖는 ‘나열’의 의미는 ‘전환’에서 발달한 것이다. 전환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뀌는 사태를 표현하는 것이었다. 예 (58가)는 바로 이러한 계기성이 의미 있는 경우이다. (58나)도 (58가)만큼 크지는 않지만 계기적 순서가 요구된다. 아이의 차례에 따라 큰애가 입고 나서 작은애가 입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58다)와 (58라)에 이르면 계기적 순서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리적으로야 ‘걷다가’ 다음에 ‘쉬는’ 행위가 오는 것이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쉬는’ 행위

26) 다만 인과의 해석에서는 ‘있니’와 같은 과거의 물음이 가능했으나, 조건에서는 ‘있니’와 같은 과거시제뿐 아니라 현재의 물음인 ‘니’도 불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뒤에 ‘걷는’ 행위가 반복되므로 나중에는 ‘걷는 것’과 ‘쉬는 것’의 순서가 의미를 잃어 버리게 된다. 그 때문에 (58다)는 계기적 사태보다는 단순한 나열을 나타내게 되어, ‘쉬다가 걷다가’로 바꾸어도 원래의 문장과 의미상 큰 차이가 없다. (58라)도 마찬가지이다. 웃는 것과 우는 것의 순서가 본시부터 문제되지 않는 경우이어서, 계기성은 사라지고 오직 나열의 관계만이 남게 된 경우라 하겠다.

이처럼 경우에 따라 ‘다가’ 구문이 시간의 흐름이라는 조건을 잃을 수 있는 것은 ‘다가’가 반복되어 쓰인 결과이다. ‘A다가 B’의 선행절은 ‘사태 A가 지속되는 도중에 있음’을 나타내고 후행절은 이후 바뀌는 새로운 사태 B를 나타내게 된다. 그런데 선행절뿐 아니라 후행절에도 ‘다가’가 붙어 ‘A다가 B다가’처럼 되면, 후행절 사태 B는 마지막 사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사태로 바뀌는 중간 단계의 성격을 갖게 된다. 사태는 ‘A → B → ?’처럼 연속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실제 발화에서는 B까지만 언급되었으므로 B 다음에 올 새로운 사태는 제 삼의 사태가 아니라 앞서 벌어진 사태 A일 수밖에 없게 되어, 결국 ‘A → B → A → B → ...’처럼 사태가 반복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처럼 반복되는 사태에서 발생의 순서는 본래의 의미를 잃고 단지 ‘반복’ 그 자체가 의미를 갖게 된다. ‘다가’가 나열을 나타내게 된 것은 이와 같은 해석 절차를 겪었기 때문이다.

우리말에는 이음씨끝이 반복됨으로써 나열이나 선택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이음씨끝들이 열거되는 절마다 붙음으로써, 연결되는 두 절의 순서는 무의미해지고, 단순히 두 절의 열거라는 해석을 갖게 되는 아래 예 (59)도 모두 같은 현상이다.

- (59) 가. 할머니가 걷고 쉬고 하면서 고갯길을 올라오신다.
 나. 가느니 마느니 (하면서) 내내 다투더라
 다. 먹거나 말거나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라. 먹든지 자든지 네 알아서 해라.

한편 위의 예 (59)는 씨끝에 따라 대응어 ‘하’의 출현 가능성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가)와 (나)처럼 부사적으로 쓰일 때에는 ‘하면서’와 같은 대응어의 부사어가 필요하지만, (다)와 (라)의 나열 표현은 후행절을 직접 수식하지 않으므로 이런 대응어가 필요 없다. 또한 (59나)는 ‘하면서’가 생략될 수 있는 점에서 생략이 불가능한 (59가)와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나열 구문에서 보이는 이러한 대응 표현은 다른 경우에도 쉽게 찾아진다.

- (60) 가. 철수, 영희, 순희, 이렇게 셋이 왔어.
 나. 이렇게 자꾸 울고 하면 혼난다.
 다.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그랬어.
 라. 그러자 다들 떠났다.

예 (60)에서 밑줄 친 표현들이 모두 선행 발화를 아우르는 대응어이다. (60가)의

‘이렇게’는 앞에 나온 ‘철수, 영희, 순희’를 아우르고, (60나)의 ‘하면’도 ‘자꾸 울고’를 되받는다. (60다)의 ‘그랬어’는 선행 표현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를 아우르며, (60라)의 접속 부사 ‘그러자’ 역시 문면에 나타나지 않은 선행 발화 전체를 가리킨다. 이기갑(1994)에서는 이러한 대응어를 ‘아우르는 대응어’라고 불렀는데, 아우르는 대응어의 선행사는 다수의 명사이거나 다수의 사태를 가리키는 것이 특징이다. 나열의 ‘다가’ 다음에 오는 ‘하’나 ‘그러하’ 역시 이러한 아우르는 대응어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가-다가’가 나열되는 다수의 사태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6. 결론

‘다가’의 원초적 의미인 전환에서 번져 나온 여러 의미들을 살펴보았다. ‘전환 → 열거’는 그 과정이 비교적 단순한 것이었지만, ‘전환 → 인과 → 조건’의 확대는 여러 가지 의미적 제약과 함께 흥미로운 의미 변화의 과정도 보여 주었다.

‘전환 → 인과 → 조건’으로의 의미 확대에 따라 말할이의 해석은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되게 된다. 전환의 경우, 선행절 사태와 후행절 사태가 달라지는 것은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어서 따로 말할이의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반면 인과의 경우는 세상의 지식과 특정 언어 표현의 도움을 얻어 두 절 사이의 인과 관계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조건은 아예 말할이의 해석이 없다면 불가능한 의미 관계이다. 어떤 사태를 가정하거나, 아니면 현실과 배치되는 특정의 사태를 가정하는 것은 말할이의 해석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전환 → 인과 → 조건’의 의미 확대는 말할이의 해석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Traugott (1995)에서 말한 ‘주관화’로의 방향과 일치하는 것이다.

‘전환 → 인과’의 변화는 의미의 내포가 축소되어 간 변화이다. ‘전환’이라는 넓은 내포로부터 세상에 대한 지식과 특정한 언어적 표현 등의 영향을 받아 ‘인과’라는 좁은 해석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전환(비대조적인 경우)과 인과의 해석 모두 선·후행절의 주어가 같아야 한다는 제약에서는 일치로 보였다.

‘인과 → 조건’의 변화는 실제 세계에서 가정된 세계로의 변화를 포함하지만, 의미의 내포에서는 오히려 넓어진 면이 있다. 조건의 의미 세계는 인과 관계와 함께 다른 의미 관계로도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인과와 조건은 후행절에 의지적 서법이 오지 못한다거나 주어 또는 말할이의 의지, 바람, 예상에 반하는 사태가 와야 하는 제약 등이 적용되는 점에서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위에서 동일 주어의 제약에서는 전환과 인과의 해석이 공통성을 보였음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후행절의 의미 제약에서는 인과와 조건의 해석이 동일함을 보였다. 그렇다면 인과의 해석은 한편으로 전환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건과 의미적 제약의 일치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하면 인과의 해석은 전환과 조건의 중간적 성격을 띠는 것이다. 이것은 곧 우리가 가정해 온 ‘전환 → 인과 → 조건’의 단계가 옳았음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인 셈이다.

‘인과 → 조건’의 의미 변화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주제 표지 ‘는’과 같은 형태적 도움을 통해 일어난다는 점이다. 주제가 본질적으로 조건을 내포하는 개념이므로, 이러한 변화를 손쉽게 초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는’은 조건성과 추정성의 두 요소에 따라 ‘다가’에 대한 결합성이 달라지는데, 이는 곧 조건 구문과 인과 구문의 전형적인 의미 관계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조건 구문은 가정된 세계의 관계이므로 후건에 추정의 양태가 오는 것이 전형적이다. 반면 인과 구문은 현실 세계의 관계이므로 후건에 말할이의 확신이 오는 것이 전형적이다. 따라서 ‘다가(는)’ 구문의 후행절에 표현되는 추정의 정도, 그리고 선행절에 나타나는 조건성의 정도에 따라, 추정성과 조건성이 강할수록 ‘다가’보다는 ‘다가는’이 선호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곧 ‘다가 → 다가(는) → 다가는’으로의 재구조화 방향을 말해 준다.

참 고 문 헌

- 강기진. (1987). 국어 접속어미 ‘-(았)다가’의 연구. 한실 이상보 박사 회갑기념 논총. 구현정·이성하. (2001). 조건 표지에서 문장 종결 표지로의 문법화. 담화와 인지 8(1).
- 김문웅. (1982). ‘다가’류의 문법적 범주. 한글 176.
- 김영희. (1975). ‘다-아서’에서 ‘다가’까지. 연세어문학 6. 연세대국문과.
- 남기심. (1994). 국어 연결어미의 쓰임: ‘-고, -어서, -니까, -다가’의 의미·통사적 특징. 서광학술자료사.
- 남풍현. (1971). ‘ㅎ다가’旡-국어에 미친 중국어의 문법적 영향의 한 유형. 어학연구 7(1). 서울대 어학연구소.
- 백낙천. (1996). ‘(-)다가’에 대하여. 동국어문학 8. 동국대 국어교육과.
- 서태룡. (1990). ‘-으니까’와 ‘다가’의 {가}. 강신항교수 회갑기념논문집. 태학사.
- 성낙수. (1976). 접속사 ‘다가’에 대하여. 연세어문학 7(8). 연세대국문과.
- 윤평현. (1989). 국어의 접속어미 연구. 한신문화사.
- 이기갑. (1987). 의도 구문의 인칭 제약. 한글 196.
- 이기갑. (1994). ‘그러하’의 지시와 대응. 그리고 그 역사. 언어 19(2).
- 이기갑. (2001). 사태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는’과 ‘올랑’. 국어학 37집.
- 이기갑. (2003). 국어방언문법. 태학사.
- 이기갑·김주원·최동주·연규동·이현중. (2000). 중앙아시아 한인들의 한국어 연구. 한글 247. 한글학회.
- 이남순. (1996). ‘다가’고. 이기문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신구문화사.
- 이성하. (1998). 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 이은경. (1990). 국어의 접속어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이재성. (1994). 연결어미 ‘다가’의 의미·통사적 특징. 남기심(1994)에 실림.
- 정인승. (1956). ‘다그다’와 ‘다가’가 큰사전에 어찌 실렸나? 한글 119.

- 최동주. (1995). 국어 시상 체계의 통시적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재희. (1991). 국어의 접속문 구성 연구. 탑출판사.
- 최현배. (1956). 안갓은 움직씨 '닥다'에 대하여. 한글 118.
- 한동완. (1996). 국어의 시제 연구. 국어학총서 245. 국어학회.
- 野間秀樹. (1993). 현대 한국어의 접속형 <다가>에 대하여-aspect · taxis · 용언분류. 조선학보 제 149집. 천리: 조선학회. 野間秀樹(2002)에 다시 실림
- 野間秀樹. (2002). 한국어 어휘와 문법의 상관구조. 태학사.
- Bak, S. (2003). Conditionals in Korean Revisited. *Discourse and Cognition* 10.2.
- Haiman, J. (1978). Conditionals are topics. *Language* Vol 54(3).
- Song, S. (1983). Korean Connection: A Reanalysis of 'Transferentive'. *Korean Linguistics* 3. The International Circle of Korean Linguistics.
- Stein, D. and Wright, S. (1995). *Subjectivity and Subjectivisation-Linguistic Perspectiv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raugott, E. C. (1995). Subjectification in Grammaticalisation, Stein, D. & Wright, S.(1995)에 실림.

이 기 갑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목포대학교 인문대학 어문학부 국어국문학 전공

전자우편 : kiglee@mokpo.ac.kr

접수일자 : 2004. 4. 16

수정본 접수 : 2004. 7. 21

게재결정 : 2004. 7. 27